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전력

김승수 시장·간부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기재부·문체부 찾아 적극 요청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기획재정부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전주시가 지역발전 예산을 이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섰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 공무원들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을 차례로 만나 전주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은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과 간부들을 만나 ▲세계 종이의 중심 한지마을 조성 ▲그린뉴딜 정원사업 지식센터 건립 ▲K-film 영화산업 허브구축 등 주요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 등 간부들을 만나 ▲전주월드컵경기장 노후관람석 교체 ▲전주야구장 건립 지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뱀 구축 등 공모사업을 포함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재부 심의시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6월부터 8월까지



8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에게 전주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의를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반영된 사업은 삭감을 방지하고, 과소 또는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기

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정치권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요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기센터, 체리 수확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리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전주체리 수확체험 농장이 이달 말까지 열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근주)는 덕진구 고광동 소재 전북체리농장(대표 박종신)에서 시민들이 체리를 수확하고 맛볼 수 있는 체리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600평 규모의 이 농장에서는 ‘홍복’, ‘좌등금’ 등 우수 체리품종들을 수확할 수 있다. 또 별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직거래도 가능하다.

체험은 300g 용기에 체리를 수확하

면서 시작하고, 시작하고 남은 체리는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체험비는 성인 2만5,000원, 초등생 2만 원, 유치원생 1만5,000원이다. 300g을 초과해 수확하고 싶다면, 별도로 5,000원만 지급하면 300g 분량을 더 담아가 수 있다. 체험 없이 바로 구매하고 싶다면 700g당 2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0시와 11시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4시와 5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무더위를 피해 야간 7시 30분 체험도 새롭게 생겼다.

참여자들은 수확체험을 통해 체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알아갈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험 신청은 농가 대표번호(010-3913-7000)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참여자가 많아 체리가 소진되는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체리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E가 풍부해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골다공증, 당뇨, 암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피부미용, 노화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열량이 낮고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을 줘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사업 신청 시 매출액과 카드매출액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증빙자료 없이도 시가 국제청을 통해 직접 매출액을 확인키로 해 신청편의를 높였다.

신청대상은 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이다. 유흥업과 도박업, 신용

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j202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매출 등을 확인한 뒤 오는 8월중 카드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차별·편견 없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장애인특화 도서관·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 일자리형 카페 등 지속 확충

전주시가 장애인 체육복지센터를 건립키로 한 것은 전주시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체육활동을 돕는 것은 물론,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취업까지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앞서 시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를 목표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늘려왔다. 동시에 장애인의 관점에서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책의 도시’답게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독서활동을 즐기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화도서관을 장애인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화도서관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도서관 이용을 꺼려온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비치했으며, ▲비장애 대상 수어교실 운영 ▲수화로 책 읽어주는 대면상담 서비스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인 ‘책나래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도서관뿐 아니라 장애인형 다목적

체육시설도 생겨나서 그동안 신체가 불편해 운동에 제약을 받던 전주시의 장애인들이 사계절 내내 마음껏 땀 흘리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론볼링장과 다목적체육관,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등이 갖춰져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어 평화동 한빛방 국민체육센터도 BF인증을 받아 장애인도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임을 입증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주시의 기반시설들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전북대학교 신성문에서 덕진공원까지 대학 캠퍼스를 장애물이 없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예술거리 나눔순과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했다.

공원의 경우 시는 송천동 숲내어린공원을 오는 10월까지 추진되는 놀이터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무장애공원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일자리도 늘려왔다. 일례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꿈앤커피와 ‘I got everything’은 지난 2016년 전주 시청 로비를 시작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덕진수영장, 효자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평화도서관, 완산수영장, 삼천도서관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중증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공공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는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도시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과 무장애시설 등을 꾸준히 확충하고,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계속 쏟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장애인이 편한 도시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 유모차를 미는 엄마, 자전거를 탄 학생 등 모든 시민들에게 편한 도시다. 또한 도시는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과 편견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늘어날 때 그간 느끼던 불편함은 배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음식 포장 다회용기에 가져가면 혜택 드려요”

전주시·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음식점 75곳과 할인·양 더 주는 ‘용기내, 전주’ 캠페인 진행

음식을 포장으로 구매할 때 음식을 담은 용기를 직접 가져가는 시민들에게 가격을 깎아주거나 양을 더 주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전주시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는 지역 내 75개 일반음식점들과 함께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용기(容器)내, 전주’ 캠페인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용기내, 전주’ 캠페인은 음식 등을 구매 시 1회용품이나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용기(courage)를 내서 용기(container)에 포장해오자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으로, 매장에 따라 100원~1,000원을 할인받거나 양을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및 75개 일반음식점과 캠페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



회용기에 포장한 인증샷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용기내전주, #용기내소비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캠페인 지속 확산을 위해 소비자 교육과 참여업소 모니터링에 나선 뒤 올 연말에는 우수 참여업소와 우수 소비자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전주시속기발발전협의회와 협력해 제로플라스틱 문화 확산을 위해 객사길에서 추진되던 다회용 공유컵 사업을 전북대 구정문 일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전북대 구정문 일원의 카페에서 다회용 공유컵에 나온 음료를 받은 뒤 컵을 인근 카페에 반납하거나 전북대 내에 설치된 반납함에 놓으면 되며, 수거된 컵을 재사용해 1회용품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